서울제일교회 증언
질 그 릇
2020.10.25.
교회개혁주일
이정배 목사

이제 '다른 기독교'를 말해야 한다

25그들이 이렇게 견해가 서로 엇갈린 채로 흩어질 때에, 바울은 이런 말을 한 마디 하였다. "성령께서 예언자 이사야를 통하여 여러분의 조상에게 하신 말씀은 적절합니다. 26곧 이런 말씀입니다.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여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 27이 백성의 마음이 무디어지고 귀가 먹고 눈이 감기어 있다.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지 못하게 하고 귀로 듣지 못하게 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게 하고 돌아서지 못하게 하여, 내가 그들을 고쳐 주지 않으려는 것이다.' 28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 구원의 소식이 이방 사람에게 전파되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이야말로 그것을 듣고 받아들일 것입니다." (행 28:25-28)

한국 개신교의 오만과 혐오 그리고 방종이 도를 넘어섰다. 세월호 참사 이후 대형교회들이 보여준 공감 능력 부재로부터 시작하여 전광훈의 광화문 집회에 이르기까지 몰상식, 반사회, 탈진리(가짜뉴스)의 온상으로 변질한 것이다. 세습 파동, 성 추문, 차별금지법 반대로 세상 민심과 등졌고 대면 예배 강행으로 선교를 포기하고 미래를 잃었다는 소식이 줄을 잇고 있다. 이런 현실에 대한 성찰과 자성 없이 정부를 코로나 파쇼라 비판하며 공산정권으로 매도하고 있으니 이보다 더 큰 비극이 없다.

이 와중에 전광훈이란 괴물이 출현했고 개신교 대표적 인물로서 각인되었다. 극우 정치와 종교를 후경(後景) 삼은 그는 무법한 광란을 통해 상식과 질서를 부정했고 세상을 혐오케 하는 파시즘을 야기, 확산시킨 것이다. 빈곤 노인층, N포세대의 불안, 이주민 동성애에 대한 혐오, 뿌리

깊은 반공주의를 앞세워 우리 사회를 무질서, 파괴로 치닫게 한 구체적 증거가 바로 광복절 광화문 집회였다. 사회불안을 자신들의 존립 근거로 삼고 신앙의 이름으로 무법천지를 만들어갔다. 한때 장로 대통령을 위해 조력하다 이제는 스스로 정치질을 하려는 전광훈의 난동을 극우 정치와 종교가 한통속이 되어 손뼉 치고 있다. 그와 선을 긋는다고 하나, 하나로 엮어진 사실적 흔적이 너무 많고 개신교 목회자들 의식 속에 1/N의 전광훈이 내재, 작동하고 있으니 걱정이다. 어쩌면 이들이 전광훈을 그를 무대에 세워 칼춤 추는 광대로 만들고 있는 것이리라.

장로교(통합)는 물론 감리교단까지 나서 NCCK 탈퇴를 말하고 있으니 걱정이다. 차별금지법을 제안했고 시민 생명을 위해 대면 예배를 삼가 달라는 정부와 같은 입장을 표명한 것이 그 이유일 것이다. 이에 더해 시민사회를 망각한 채 중세기를 살고 있는 듯 교회 절대주의를 신봉하는 것도 한 이유가 될 것이다. 하지만 그럴수록 교회는 사회는 물론 급기야 신도들로부터 배척당할 수밖에 없다. 대면 예배 강행으로 실제 목회자들과 평신도들 간의 갈등과 불화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한 통계에 의하면 교인들조차 10명 중 7명 정도가 K-방역을 지지하고 있다. 차별금지법 역시 긍정 쪽이 거부보다 1.5배 많다는 통계도 기독교사회연구원을 통해 최근 공지되었다. 이렇듯 현실과 옳게 대면 못 할 경우 짧은 시간 내에 개신교 인구가 5% 미만으로 급감할 것이란 진단이 회자한다. 코로나 사태에서 드러나듯 기독교 절대주의에 편승한 목회자들, 그들 특권의식이 교회 미래를 실종시키는 직접적 원인이 될 것이다. 더 이상 교회 내에 ‘믿습니까? 아멘’의 논리를 확신시키지 말아야 한다. 인간이 합리적 이성을 희생시키는 종교를 용납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 앨버트 슈바이처는 신앙을 이성 필연적인 것으로 생각했다. 사람은 믿기 위해서라도 먼저 제대로 알기를 원하는 까닭이다.

필자는 중병에 걸린 한국교회의 실상을 다음의 개념으로 정리, 소개한 바 있다. 영적 치매, 영적 자폐 그리고 영적 방종이 바로 그것이다. 이들

질병이 육체적으로도 무섭거늘 하물며 영적이라니 더더욱 겁날 수밖에 없다. 교회란 이름을 내걸고 하늘 신앙을 선포하며 예수를 말하나 목전의 성장과 영화, 감투를 위해 정작 자신의 근본과 출처를 잊고 말았다. 예수는 잊고 감독이란 감투만 보았고 머리 둘 곳 없었던 예수는 실종시켰으며 마성적 성장에 취해 사회적 불의에 눈감고 개인의 심리에 매달리고 있으니 영적 치매란 말 밖에 달리 진단할 수 없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는 표어는 있으나 그때로 돌아갈 이 아무도 없으니 걱정이다. 성서 말대로라면 이들은 모두 실패한 제자들일 뿐이다. 이런 상태로 기독교의 미래를 단연코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영적 자폐 역시 교회가 앓고 있는 또 다른 중증의 질병이다. 흩어지는 교회, 그것이 교회의 본이름이거늘 교회는 굳센 껍질로 쌓인 갑각류처럼 닫힌 공간이 되었다. 급기야 부자, 친인척 세습을 통해 동종교배가 반복되는 열등한 집단처럼 인식되기 시작했다. 하느님은 교회를 통해 세상에 말씀할 뿐 아니라 역으로 세상을 통해서 교회에 말씀하기도 한다. 그것을 우리는 하느님의 선교(Missio Dei)라 일컬었고 그 정신을 수용해왔다. 하지만 철옹성이 된 교회는 자신만을 방주라 여겨 하느님을 성전 속에 가뒀고 스스로를 세상과 단절시켰다. 세상의 빛이 아니라 건물에 갇혀 스스로 어둠이 되어 버린 것이다. 허나 금번 코로나 사태는 철옹성 교회를 단박에 무력화시켰다. 대면 예배가 금지되니 우리 피 같은 헌금, 수백, 수천억을 들여 지은 건물이 무용지물로 변했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지 않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다는 예수 말씀을 잊은 결과였다. 최근 직장에서는 "아직도 교회 나가는가?"를 질문받은 교인들이 많아졌다 한다. 교회가 주는 물에 누구도 목말라 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으니 참으로 서글프다. 이런 영적 자폐는 교회의 공감력 확대를 통해서만 치유될 수 있다. '공감의 시대'란 말이 있듯이 우리 신앙은 상호 소통, 교감하는 공감력을 통해 표출, 실현되어야 할 것이다.

영적 방종 역시 그리스도 몸 된 교회를 붕괴시키는 교회가 앓고 있는 중병의 또 다른 이름이다. 치매와 자폐 증세를 지닌 교회가 신앙 언어를 상투화시켜 돈(욕망)을 '거룩'으로 둔갑시켰으니 말이다. 영적 모양, 경

건의 형식만 화려하게 갖췄을 뿐 그 내면은 온통 세상적인 것으로 채워졌다. 설교를 통해 표출되는 이야기는 온통 세상적 축복에 관한 것뿐이다. 자신들 교회에 나와 기도하면 평당 37만 원짜리 땅이 370만 원으로 변한다고 설교하는 목사와 이를 '아멘'으로 화답하는 교인들이 수천, 수백억짜리 교회에서 공존, 공생하고 있다. 벌써 십여 년 전 영국 BBC 방송에서 OECD 가입국 중 욕망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로 이 나라, 이 땅을 꼽았으니 교인 비율 자랑하던 한국교회는 그 빛을 잃었다. 본래 욕망과 종교는 서로 반비례해야 정상인 까닭이다. 이처럼 교인들을 욕망 덩어리로 만들었으니 종교 자체의 존재 이유가 사라져 버렸다. 이런 중병을 지녔음에도 자신을 돌아보지 못한 한국교회는 코로나 위기를 겪으며 불과 백여 년 전 선혈들이 물려준 기해년의 3.1정신의 기독교를 영적으로 파산시켰다.

이런 맥락에서 사도행전 끝장, 28장의 말미에 있는 성서 말씀이 2020년 종교개혁 주일 예배의 본문이 되었다. 수차례 읽은 사도행전이지만 바울이 이사야의 글을 인용하며 마지막 장을 마무리한 것이 이번에서야 눈에 들어왔다. 주지하듯 교회는 28장으로 끝난 사도행전을 선교역사라 가르치며 이후 29장은 우리 기독자의 몫이라 설교했다. 사도행전의 선교역사를 이어가라는 취지에서였다. 하지만 앞서 보았듯이 코로나 사태는 개신교의 미래를 앗아갔다. 예배를 고집하다 선교를 포기했고 오늘을 위해 내일을 상실했다. 이 점에서 바울이 이사야 말을 인용하여 자기 동족을 고발한 것이 오늘 우리 상황에서 소환되어야 옳다.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 이 백성의 마음이 무디어 지고 귀가 먹고 눈이 감기어 있다.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지 못하게 하고 귀로 듣지 못하게 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게 하고 돌아서지 못하게 하여, 내가 그들을 고쳐 주지 않으려 하는 것이다.' 이사야는 자기 동족 이스라엘민족의 영적 자폐, 영적 치매의 실상을 여실히 고발했다. 귀를 막고 눈을 감아 심지어 마음도 닫혀 현실을 보지 않고 선민인 것에 자족하며 교만한 이들을 망하게 내버려 두겠다고 한 것이다. 그렇기에

사도행전 끝장은 오늘 현실에서 개신교를 향한 바울의 비판으로 읽어도 좋겠다. 이런 기독교라면 하늘도 내칠 것이고 이사야도 버릴 것이며 바울도 포기할 것이다. 물론 바울은 죽은 자의 부활을 믿었고 그것을 끝까지 동족 이스라엘에 전하려 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이를 수용치 않았다. 오히려 바울은 이 부활을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더 잘 받아들일 것이라 확신했고 결국 동족과 결별하기에 이르렀다. 이것은 오늘 우리 개신교인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사도행전 끝장은 유대인이 아니라 저마다 1/n의 전광훈류의 욕망을 감추고 있는 이 땅 개신교와 이를 이끄는 목회자들에게 들려질 말씀이기 때문이다. 영적 파산에 이른 오늘의 개신교는 앵무새처럼 교리(말)로서는 믿겠으나 삶으로서 예수의 부활을 수용치 못할 것이다. 부활은 바울처럼 삶의 급진적 전복을 요구하니 말이다. 작금의 개신교는 결코 죽었다 사는 부활의 종교가 될 수 없다. 생명의 종교가 아니라 생명을 망치는 욕망의 종교, 자신의 생명을 급기야 물질로 바꾸는 탐욕과 혐오의 종교일 뿐이다.

그럼에도 '다른 기독교'를 지향하는 움직임이 있으니 여전히 희망이다. 뜻을 붙잡고 버티며 견뎌주는 '작은 교회'들이 있는 까닭이다. 그러나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역시 신학이다. 과연 어떤 신학이 다른 기독교를 만들어 낼 수 있을까? 우리에게는 중세 가톨릭(스콜라) 신학과 다른 루터에게서 시작된 종교개혁 신학이 있다. 하지만 근대를 열었던 개신교는 자본주의를 잉태한 근대 세계에 적응하며 세 개의 '오직'(Only) 교리를 타락시켰다. 믿음을 비합리로, 은총을 축(기)복으로 성서를 문자주의로 변질시킨 것이다. 하여 오직 믿음으로 대표되는 개신교 신학이 중세 가톨릭교회의 면죄부보다 더 타락했다는 말이 회자한다. 맘몬적 욕망을 '믿습니까/아멘'의 논리로 긍정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이제 세 가지 '오직'은 성서적(예수) 시각에서 재 의미, 재구성되어야 옳다. 역사적 예수 연구가들은 오히려 루터적 시각을 벗겨내야 로마서를 비롯한 성서 본뜻을 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면 관계상 각설하고 설교자는 세 '오직'을 고독, 저항 그리고 상상(환상)이란 말로 재소환하고 싶다. 이것은

역사적 예수 삶의 총체적 표현으로서 광야의 시험, 겟세마네의 고뇌 그리고 예루살렘의 입성과 맥을 같이 한다. 오늘의 기독교는 고독하지 않고 화려하며 끼리끼리 분주하다. S. 키르케고르가 말한 대로 깊은 종교적, 영성적 실존으로서의 '고독'을 사랑해야 할 것이다. 겟세마네의 고뇌는 곧 저항이기도 했다. 그곳에서 그 잔을 피하지 않고 마시고자 했던 예수가 우리에게 은총이며 그 은총은 우리를 타락한 교회와 세상에 대해 저항으로 이끈다. 여기서 신학자 D. 본회퍼 목사를 떠올려도 좋겠다. 하늘나라가 있음을 선포한 예수, 그것을 위해 독배를 마시고자 했던 예수가 있었다는 사실 그것 자체가 은총이다. 세상 안에 살지만, 세상과 다르게 살 수 있는 길을 가르쳤던 까닭이다. 그런 점에서 N. 베르다이에프와 신학자 이신(李信)의 말대로 성서는 상상력의 보고(寶庫)다. 현실 너머 다른 길 있음을 자극하고 추동하는 말씀이 성서에 담겨 있다. 성서를 읽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상상할 수 없다면 그것은 성서일 수 없다. 성서가 주는 상상력을 갖고 새 세상을 꿈꾸고 현실을 달리 살지 못한다면 우리에게 부활은 여전히 교리일 뿐 삶이 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이유로 금번 종교개혁 달을 맞아 본 설교자는 뜻을 함께하는 이들과 함께 '2020, 다시 희망'을 위한 선언서를 만들었고 심포지엄을 열었으며 상상력의 빈곤과 타락, 곧 영적 파산에 이른 개신교를 향해 20개조로 개혁을 요구했다. 개신교가 개혁을 거부할 시 교회 불복종운동도 시작할 것임을 천명했다. 대단히 불경스러운 언사이나 교회를 살리기 위한 역설적 표현으로 받아 주어야 할 것이다. 당시 루터가 있었다면 오늘 우리는 그 루터가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개신교는 거듭 개혁의 종교일 때 그 존재 의미가 있다. 어떻게 변화, 개혁하려는가?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던져진 질문이다. 이를 위해 설교문 끝에 '2020 다시 희망' 선언서를 첨부한다. 함께 뜻을 모아 주실 것을 청하며 역사적인 교회에서 종교개혁 주일 설교를 할 수 있어 큰 영광이었음을 고백한다.▨

2020년 “다시 희망!”

-절망의 끝에서 다시 ‘신뢰의 그루터기’가 되리라-

3.1 선언을 주도한 지난 100년 역사의 주역, 한국 개신교회가 종교개혁 500주년을 크게 기념했으나 오늘의 험한 모습으로 2020년을 맞을 줄 전혀 상상치 못했다. 인류 역사를 앞뒤로 가른다는 코로나 사태로 이 땅 개신교의 숨겨진 민낯이 온전히 드러난 까닭이다. 자연 파괴의 징조로서 창궐한 바이러스에 책임질 생각 않고 고작 피해자로 인식하며 정부와 시민, 성도들과 각 세우며 제 살길 찾는 개신교 성직자들 모습이 구차했고 가련했다. 더더욱 전광훈에게 면죄부를 주었고 교회 세습을 허용했으며 여성 안수를 거부한 몇몇 개신교단의 총회를 지켜보며 개신교도인 우리는 한국교회에서 미래를 기대할 수 없어 절망하였다.

지금껏 개신교는 2-3백만의 가나안 교인들을 양산했고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의 온상이 되었음에도 죄책 고백 전혀 없이 성장과 축복을 강조해왔다. 기후 붕괴에 무심한 채 천국 신앙을 전했고 차별과 혐오를 조장했으며 가짜뉴스의 진원지가 되었고 돈으로 교권을 장악하여 교회 세습까지 성사시켰다. 그렇기에 예배가 목숨보다 중하다 강변하며 ‘교회밖에 구원 없다’는 교회의 배타적 주장이 참으로 허망하고 공허할 수밖에 없다. 누가 과연 이런 교회가 주는 물에 목말라 하겠는가? 하나님과 교회 그리고 목사를 동체로 여긴 이단(異端)적 구조가 교회의 공공성과 민주주의를 붕괴시켰다. 교파 막론 교회의 70-80%에 이르는 뭇 미자립 ‘작은 교회’와 수백, 수천억을 휘두르는 대형교회가 공존하는 현실은 단연코 반성서적이다. 복음이 아니라 자본이 지배하는 교회 현실, 곧 공교회성을 망각한 결과라 할 것이다. 따라서 기업화되었으며 정치세력화를 꾀하는 대형교회는 이제 주저앉을 바벨탑이자 허물어질 성전이 되고 말았다.

이렇듯 개신교의 온갖 병폐로 중증에 처한 교회는 신학 부재, 그 오남용의 썩은 열매를 맺었다. 로마서는 ‘칭의’를 강조했으나 본래 ‘화해’의 책이기도 하다. 하느님의 의(義)로 유대인/이방인, 유대인/기독교인, 이

방적 기독교인/유대적 기독교인들 모두가 하나로 엮어지길 꿈꿨던 책이었다. 이를 위해 '칭의'도 필요했던바, '그리스도 안의 존재'(Sein in Christo)는 제국 안에 살지만, 그와 다른 삶을 살겠다는 의지의 표명이었다. 하지만 자본과 짝한 개신교는 세 개의 오직(only) 교리를 크게 오용했다. '오직 믿음'이 용서를 빌미로 자본주의 병폐를 묵인했으며 '오직 은총'이 욕망 확대와 뜻을 같이했고 '오직 성서'가 이런 행위를 합리화하는 절대적 근거로 사용된 까닭이다. 대면 예배 강행 속에서 드러난 성전 절대주의, 성직자 중심주의는 성서 절대주의와 더불어 이런 오남용의 산물이다.

미국 의존적인 정신적 사대주의 역시 오늘날 이런 개신교를 설명할 수 있는 근거라 하겠다. 자칭 보수라 칭하되 극우 기독교를 편들며 인종, 문화 차별을 부추기고 스스로 가짜뉴스 신봉자가 된 트럼프, 그에게 이 땅의 개신교와 보수 정치세력이 편승하고 있다. 자신의 정치입지를 위해 미국을 분열시켰고 세계를 신 냉전체제로 몰아가는 트럼프의 광기를 학습하여 맹종하고 있으니 참으로 가관이다. 한국 개신교가 키운 정신적 사대주의자들의 실상을 우리는 성조기 휘날리는 광화문 광장에서 여실히 경험했다. 독립을 위해 좌우가 함께 했던 지난한 우리 역사를 부정하고 있으니 통탄스럽다. 교회라는 게토, 한국전쟁으로 야기된 트라우마에 갇혀 북쪽 이념을 악마시한 결과였다. 70년 분단선을 남북 정상이 손잡고 넘나들었던 4.27 사건조차 거부하는 개신교에게 반공주의가 신앙의 다른 이름이 된 것이다. 이렇듯 화해 대신 혐오의 종교가 된 개신교에게 '영적 파산'이 선고되었으니 미래 세대에게 개신교는 역사책에서나 발견될 이름이 될까 두렵다.

교회 밖 세상은 살겠다고 아우성치는 탄식 소리(롬8:18-25)로 가득 차 있다. 진실을 밝히려는 세월호 유족들의 외침, 얼굴 달리한 뭇 김용균의 절규, 죽음을 담보한 비정규직, 일용직 노동자의 한숨, 몇만 원 더 벌고자 질주하는 오토바이 인생들의 고통이 우리들 일상이 되었다. 미래를 기대할 수 없는 청년 세대의 좌절, 값싼 노동력으로 내몰리는 여성들의 눈물, 환경을 살려내라 소리치는 차세대 주역들인 청소년의 외침도 우리

가 들어야 할 탄식이다. 그러나 지금 교회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안식일 (예배) 지켜 천국 가라'는 소리 내뱉는 것이 결코 답일 수 없다. 일(노동)이 없으면 안식도 없는 법이다. 안식일을 지키라 하기 전에 교회는 일(노동)이 있는가를 묻고 염려해야 옳다. 그것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다는 성서 말씀의 본뜻일 것이다.

이제 이런 절망 속에서도 '다시 희망'을 찾고자 한다. 소금 맛을 잃었고 빛 됨을 저버렸으나 그래도 우리는 진솔한 죄책 고백과 함께 폐허 속에서 새길 찾아 걷고 싶다. 2020년 코로나는 문명의 교정자로서 우리 삶을 결코 과거로 되돌리지 않을 것이다. 1990년 JPIC 서울대회가 '정의, 평화, 창조질서 보전을 이룰 수 없는 경우 기독교 구원(정신)은 결코 실현된 것이 아니라' 했던 말도 소환한다. 남북 간 평화체제를 이룰 수 없다면 바울처럼 그렇게 기독교적 구원마저 포기할 생각도 해본다. 개혁을 부정하는 교회, 교단과의 단절 내지 결별 역시 우리가 감수해야 할 고통일 것이다. 이제 '다른 기독교'를 위해 내쳐졌던 300만 명 가나안 신자들 그리고 수동적 존재였던 평신도- 특히 여성들이 개혁의 동반자이자 주체로 나설 것을 소망한다. 개신교가 다시 '신뢰의 그루터기'가 되는 그날까지 이들과 함께 다음 20개 항목으로 개신교 개혁을 제안하고 선포한다.

1. 교회 건물 줄여 사회적 약자를 구제한다.
2. 세습 불허와 함께 전광훈류의 개신교와의 단절한다.
3. 거짓을 증언하는 일체 행위를 중단한다.
4. 반공주의, 맘몬주의, 성직주의로부터 복음을 해방한다.
5. 목회자들의 영적, 도덕적 불감증에 단호히 대처한다.
6. 포용과 사랑의 힘으로 모든 차별에 저항한다.
7. 분단신학 사죄하고 남북 평화체제를 주도한다.
8. 신학 사대주의 해체하고 주체적 신학교육을 실시한다.
9. 폐쇄적 배타성 허물고 역사, 문화 및 사회와 공존한다.
10. 생활신앙을 위해 '흩어지는 교회' 상을 정립한다.

11. '공교회성'을 위해 초교파적으로 연대한다.
12. 기후붕괴 시대를 위한 범 개신교적 비상체제를 가동한다.
13. 성직 절대주의 철폐하고 평신도 주체성(지도력)을 인정한다.
14. 남녀 동수로 교회와 교단을 민주적으로 운영한다.
15. 교역자 간 임금격차 줄여 계급 차별 해소한다.
16. 미래 세대, 청년들을 위한 교육에 적극 투자한다.
17. 교회 예산의 십일조를 사회에 환원한다
18. 상속유산의 십일조를 공유경제 위해 기부한다.
19. K-방역에 협조하되 코로나 이후 시대를 대비한다.
20. 교회가 개혁을 거부할 시 교회 불복종운동을 시작한다.

이상과 같이 2020년 '다시 희망'을 위해 뜻 모아 하나가 된 개신교인들, 그리고 이를 지지하는 시민들의 이름으로 다시 '신뢰의 그루터기 되려 하는 개혁 의지를 다지며 변화의 능동적 주체가 될 것을 교회와 사회에 천명한다.

2020년 10월 22일

'2020 다시희망' 준비위원회